

■ **참고 사이트** Vincent van Gogh(1887). 자화상(Self-portrait)  
네덜란드 Rijksmuseum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  
(접속일: 2021. 9. 6.)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1853~1890)는 네덜란드 출생의 인상주의 작가로 선명한 색채와 정서적인 감화로 주고 있으며, 현대미술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본인이 생존해 있던 그 시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 2020). 매우 훌륭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생존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 그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 생존 과정에서도 정신 질환과 삶에 대한 근심, 생계를 위한 걱정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의미를 바라보게 한다.



〈그림1〉 고흐의 자화상

출처: Van Gogh V.W.(1887). 자화상(Self-portrait)  
네덜란드 Rijksmuseum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  
(접속일: 2021. 9. 6.)

■ **참고 사이트**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2020. 3. 11.작성) 현대미술 쉽게 보기  
[네이버캐스트], 빈센트 반 고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889&cid=58862&categoryId=58876>  
(접속일: 2021. 10. 20.)

Van Gogh V.W.(1887). 자화상(Self-portrait)  
 네덜란드 Rijksmuseum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  
 (접속일: 2021. 9. 6.)

| 내용주  | 각주  | 참고문헌   |
|--|---|--|
| 국립현대미술관 웹진<br>Art:mu(2020)<br>(국립현대미술관 웹진<br>Art:mu, 2020) | 국립현대미술관 웹진<br>Art:mu(2020)<br>또는 국립현대미술관 웹진<br>Art:mu(2020. 3. 11. 작성)<br>현대미술 쉽게 보기<br>[네이버캐스트],<br>빈센트 반 고흐,<br><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889&amp;cid=58862&amp;categoryId=58876">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889&amp;cid=58862&amp;categoryId=58876</a><br>(접속일: 2021. 10. 20.) | 국립현대미술관 웹진<br>Art:mu<br>(2020. 3. 11. 작성)<br>현대미술 쉽게 보기<br>[네이버캐스트],<br>빈센트 반 고흐,<br><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889&amp;cid=58862&amp;categoryId=58876">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889&amp;cid=58862&amp;categoryId=58876</a><br>(접속일: 2021. 10. 20.) |
| Van Gogh V.W.(1887)<br>(Van Gogh V.W., 1887)               | Van Gogh V.W.(1887).<br>자화상(Self-portrait),<br>네덜란드 암스테르담<br>국립 미술관,<br><a href="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a><br>(접속일: 2021. 9. 6.)   | Van Gogh V.W.(1887).<br>자화상(Self-portrait),<br>네덜란드 암스테르담<br>국립 미술관,<br><a href="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a><br>(접속일: 2021. 9. 6.)  |

## 4.2. 웹페이지와 블로그



### 웹페이지 자료의 인용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의 인용 양식(citation style)과 미국 심리학회(APA)의 APA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된 글임.
- 본 사례의 부적절한 인용표시 예시의 첫 번째로, 서울대 도서관 웹페이지의 학문분야별 대표 양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였지만 인용한 표 하단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서 부적정 사례로 제시된 글임.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은 본문이나 표 하단 두 곳 모두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나, 표의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표 하단에만 출처표기를 하여도 무방함. 이와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0:154)는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표와 그림을 활용할 경우, 제시된 표나 그림의 위나 아래에 그 출처를 밝혀야 함. 또한 본문에서 출처표기를 한 해당 표와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에도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설명하고 있음.
- 올바른 인용방법의 제안 중 두 번째는 APA 웹페이지의 APA 양식에 대한 설명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발전시켜 작성한 부분이나, APA 웹페이지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서 부적정 표기로 제시된 사례임. APA 홈페이지에서 APA 양식의 시초가 되는 글, 그리고 교육자 및 연구자의 요구로 인해 APA 출판매뉴얼의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아이디어를 획득 하였지만, 본 사례에서는 해당 부분을 생략하였음. 그러나 연구자가 해당 아이디어를 타인의 저작물 (이것이 기초적인 설명 자료일지라도)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인용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웹페이지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작성자(발행기관), 발행일(년, 월, 일), 페이지 제목, 사이트명, URL, 접속일 등의 정보를 모두 표기해야 함. APA 양식의 경우, 페이지의 작성자나 발행기관이 표시 되어 있지 않으면 페이지 제목으로 시작하여 출처를 표기하며, 페이지 내용이 시간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색 날짜를 표기함. 발행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발행일 자리에 'NO DATA'의 약어인 'n.d.'를 표기함.<sup>32)</sup>

32 Purdue Writing Lab. "Web Sources // Purdue Writing Lab." Purdue Writing Lab. (접속일: 2021. 9. 13.)

### ✓ 참조: A.P.A. 양식 웹페이지 출처표기

(국문) 발행기관, 발행일, 페이지 제목, 사이트 이름, URL, 접속일

(영문) Purdue Writing Lab. (n.d.). Apa Style Workshop. purdue writing lab. Purdue Writing Lab. Retrieved October 6, 2021, from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apa\\_style/apa\\_overview\\_and\\_workshop.html](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apa_style/apa_overview_and_workshop.html).

-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의 출처표기가 중요해짐에 따라 해외 주요 대학 및 관련 기관의 웹페이지에서는 스타일 자동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웹사이트 출처표기가 어려울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함.

### ✓ 참조: 출처표기 변환 제공 사이트

가. 한국어 사이트

- 카피킬러 출처 생성기: <https://citation.sawoo.com/ref/intro>  
: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APA, Chicago, MLA, Vancouver 양식으로 총 4가지 스타일을 제공 중

나. 영문 사이트

- 퍼듀 대학: APA, Chicago, MLA의 출처표기 스타일 생성 제공

|            |   |
|------------|---|
| APA 양식     | <a href="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apa_style/apa_overview_and_workshop.html">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apa_style/apa_overview_and_workshop.html</a>                                       |
| Chicago 양식 | <a href="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chicago_manual_17th_edition/cmos_overview_and_workshop.html">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chicago_manual_17th_edition/cmos_overview_and_workshop.html</a> |
| MLA 양식     | <a href="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mla_style/mla_overview_and_workshop.html">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mla_style/mla_overview_and_workshop.html</a>                                       |

## 부적절한 인용 예시



우리는 다양한 인용표기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사용되는 참고문헌 표기 및 인용 양식이 서로 다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sup>1\)</sup>](#)에서는 <표1>과 같이 학문분야에 따른 인용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MLA, 사회과학 및 교육학에서는 APA, 문학, 역사학, 예술 분야에서는 Chicago – Notes & Bibliography, 자연과학 및 일부 사회과학에서는 Chicago – Author-Date, 공학 분야는 IEEE 방식이 대표적이다.

<표1> 학문분야에 따른 인용양식

| 학문구분           | 대표 양식                             | 설명  |
|----------------|-----------------------------------|---|
| 인문학            | MLA                               | 저자권 중시<br>참고목록 작성시 저자명이 서명, 출판 정보보다 우선  |
| 사회과학,<br>교육학   | APA                               | 출판일자가 저자명 바로 뒤에 위치,<br>최신성, 관련성을 중시하여 참고문헌<br>목록에서 출판일자가 저자명 바로 뒤에<br>위치                      |
| 문학, 역사학,<br>예술 | Chicago – Notes<br>& Bibliography | 인용순서대로 각주, 미주 삽입하는 방식<br>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알파벳/<br>가나다 순)으로 정리                                   |
| 자연과학,<br>사회과학  | Chicago –<br>Author-Date          | 본문 내 인용표기<br>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알파벳/<br>가나다 순)으로 정리   |
| 공학             | IEEE                              | 시카고 방식에 기반한 양식<br>인용순서대로 본문에서 대괄호 내 숫자<br>표기 [1], [2]..<br>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br>참고문헌 목록은 인용 순으로 정리 |

사회과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개발된 인용이다. APA 양식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up>2)</sup>. Bentley et al(1929)는 Psychological Bulletin 저널에 7페이지 원고 준비 지침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을 게재하였다. 이 1929년 7페이지 분량이었던 원고 준비지침은 관련 연구자 및 교육자들의 요구에 의해 범위와 내용이 확장되어, 현재 APA 출판매뉴얼(제7판) 약400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되고 있다. 또한 APA는 온라인 튜토리얼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가 APA양식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1)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2.15.) 참고문헌 작성법(Citation)  
<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  
 (접속일:2021.12.21.)
- 2) APA(n.d.), About APA Style, 2021. 12. 21. 접속,  
<https://apastyle.apa.org/about-apa-style>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우리는 다양한 인용표기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사용되는 참고문헌 표기 및 인용 양식이 서로 다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sup>1\)</sup>](#)에서는 <표1>과 같이 학문분야에 따른 인용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MLA, 사회과학 및 교육학에서는 APA, 문화, 역사학, 예술 분야에서는 Chicago – Notes & Bibliography, 자연과학 및 일부 사회과학에서는 Chicago – Author–Date, 공학 분야는 IEEE 방식이 대표적이다.

〈표1〉 학문분야별 대표양식

| 학문구분           | 대표 양식                             | 설명   |
|----------------|-----------------------------------|--|
| 인문학            | MLA                               | 저자권 중시<br>참고목록 작성시 저자명이 서명, 출판정보<br>보다 우선                              |
| 사회과학,<br>교육학   | APA                               | 출판일자가 저자명 바로 뒤에 위치,<br>최신성, 관련성을 중시하여 참고문헌 목록<br>에서 출판일자가 저자명 바로 뒤에 위치 |
| 문학, 역사학,<br>예술 | Chicago – Notes<br>& Bibliography | 인용순서대로 각주, 미주 삽입하는 방식<br>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알파벳/<br>가나다 순)으로 정리            |

| 학문구분          | 대표 양식                    | 설명  |
|---------------|--------------------------|---|
| 자연과학,<br>사회과학 | Chicago –<br>Author-Date | 본문 내 인용표기<br>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알파벳/<br>가나다 순)으로 정리   |
| 공학            | IEEE                     | 시카고 방식에 기반한 양식<br>인용순서대로 본문에서 대괄호 내 숫자<br>표기 [1], [2]..<br>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br>참고문헌 목록은 인용 순으로 정리 |

출처: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2.15.) 참고문헌 작성법(Citation)  
<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  
 (접속일: 2021. 12. 21.)

사회과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이하 APA) 양식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개발된 인용이다. APA 양식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up>2)</sup>. Bentley et al(1929)는 Psychological Bulletin 저널에 게재된 7페이지 원고 준비 지침(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sup>3)</sup>이 그 시초가 되며, 1929년 7페이지 분량이었던 원고 준비지침은 관련 연구자 및 교육자들의 요구에 의해 범위와 내용이 확장되어<sup>4)</sup>, 현재 APA 출판 매뉴얼(제7판) 약400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되고 있다.

- 각주 1)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2.15.) 참고문헌 작성법(Citation)  
<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  
 (접속일:2021.12.21.)
- 2) APA(n.d.), About APA Style, 2021.12.21. 접속,  
<https://apastyle.apa.org/about-apa-style>
- 3) Bentley, M., Peerenboom, C. A., Hodge, F. W., Passano, E. B., Warren, H. C., & Washburn, M. F. (1929).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 Psychological Bulletin, 26(2), 57-63.  
<https://doi.org/10.1037/h0071487>  
 (접속일: 2021. 12. 21.)

4) APA(n.d.), About APA Style,  
<https://apastyle.apa.org/about-apa-style>  
 (접속일: 2021. 12. 21.)

| 내용주                            | 각주                             | 참고문헌   |
|--------------------------------|--------------------------------|--|
| 서울대학교 도서관<br>(2021)            | 서울대학교 도서관<br>(2021)            |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2.15.)<br>참고문헌 작성법(Citation)<br><a href="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amp;p=2151776">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amp;p=2151776</a><br>(접속일:2021.12.21.)   |
| APA(n.d.),                     | APA(n.d.),                     | APA(n.d.), About APA Style,<br><a href="https://apastyle.apa.org/about-apa-style">https://apastyle.apa.org/about-apa-style</a><br>(접속일: 2021. 12. 21.)   |
| Bentley, M., et al.<br>(1929). | Bentley, M., et al.<br>(1929). | Bentley, M., Peerenboom, C. A., Hodge, F. W., Passano, E. B., Warren, H. C., & Washburn, M. F. (1929).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 Psychological Bulletin, 26(2), 57-63. <a href="https://doi.org/10.1037/h0071487">https://doi.org/10.1037/h0071487</a><br>(접속일:2021.12.21.) |



## SNS, 블로그의 인용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KIRD 블로그, 신문기사, 웹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가상으로 작성된 조사보고서임.
- 보고서나 논문 작성 시 국내외 사례 등을 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실제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사례를 먼저 검색하게 됨. 최근 각 기관 및 협회에서 발간물을 인쇄자료 형태에서 디지털 자료로 발간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인쇄물로 발간한 자료를 블로그에 그대로 탑재하기도 함. 블로그 등의 전자매체는 기존 인쇄물보다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 첫 문단은 신문기사와 블로그 글을 이용하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팀의 성과를 기술하고 있으며,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 부적정 인용표기 사례로 제시됨.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다고 해서 출처표기 없이 자유롭게 인용하여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인용할 때, 블로그 인용 방법을 잘 몰라 인용표기 자체를 주저하게 되거나 논문 또는 보고서에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었을 때 내용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생각에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블로그를 활용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블로그 자체의 신뢰성을 판단하거나 연구책임자 및 공동 연구자 등과 논의한 후 블로그 글을 본인의 글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APA 양식의 경우 블로그 인용 시 접속일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만일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 인출 날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블로그 등과 같이 변화가 빈번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접속일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인용한 블로그에 대한 인용표기는 하였으나 “ ”의 직접인용 표기나 바꿔쓰기 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하여 연구부정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예시로 포함하였음. 블로그 등의 온라인 자료는 기술적으로 원문 그대로 옮겨오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바꿔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글을 이용하기 쉬움. 또한, 일부 연구자는 추후에 수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원문을 수정하지 않은 채 원문을 글에 복사하여 붙여 넣은 다음, 수정하는 것을 깜박 잊어버려 의도치 않은 연구윤리 의심을 받을 수 있음. 블로그 글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타인이 작성한 글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문 인용 표기와 같이 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후 바꿔쓰기를 통해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원문을 바꿔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직접인용 표기(“ ”)를 해야 함.

## 부적절한 인용 예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은 17분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을 식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이 코로나19 연구를 시작한지 약 1년 만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에서의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에 대한 세미나를 20년 1월에 개최한 것이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연구팀은 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내었다.

- 요약 -

감염병 연구팀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감염병 발생 조기경보 ② 확산예측 ③ 방역정책 제언(자문)이다.<sup>1)</sup> 조기경보는 국가별로 알려진 감염병의 국내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알리는 일이다.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모이는 300개 국내 응급실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다. 각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확산예측은 ‘감염재생산지수’를 측정해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 그려보는 것이다. 재생산지수는 주로 3가지 요인인 바이러스의 전염력, 사람들 간 접촉수준(밀접접촉량), 감염기간을 토대로 도출한다. 예측활동은 일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일이라 최선과 최악의 상황을 모두 산정한다.

- 요약 -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의 코로나19 확산예측 리포트(2021. 9. 10. 작성)<sup>2)</sup>에서는 백신 확산 과정에서의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집단이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집단이 3차 유행기간에서는 50~59세, 60~59세, 40~49세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던 반면, 4차 유행 상황에서는 18~29세, 0~17세, 30~39세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다. 이는 그간의 백신 접종 완료층이 고령자 중심이었던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참고 문헌 1) 김우현(2020.12.3. 작성), 국내 연구팀, 17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판별하는 진단기술 확보,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42057>

(접속일: 2021. 9. 13.)

2)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2021. 9.10. 작성) 연령군, 백신, 변이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국가수리과학연구소, [https://www.nims.re.kr/research/post/covid19\\_2/34393](https://www.nims.re.kr/research/post/covid19_2/34393) (접속일: 2021.9.13.)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은 17분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을 식별하는 기술을 최근 발표하였다.<sup>1)</sup> 이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이 코로나 19 연구를 시작한지 약 1년만의 성과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팀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에서의 ‘원인불명의 폐렴’ 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에 대한 세미나를 20년 1월에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내었다.<sup>2)</sup>

- 중략 -

감염병 연구팀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감염병의 국내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알리는 감염병 발생 조기경보, 둘째, ‘감염재생산 지수’를 측정해 감염병의 추세 확산 예측, 셋째, 해당 전염병을 통제·관리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sup>2)</sup>

- 중략 -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의 건국대학교 정은옥 연구팀(2021. 9. 10. 작성)에 따르면 백신 확산 과정에서의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집단이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sup>3)</sup>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집단이 3차 유행기간에서는 50~59세, 60~59세, 40~49세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던 반면, 4차 유행 상황에서는 18~29세, 0~17세, 30~39세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다. 이는 그 간의 백신 접종 완료층이 고령자 중심이었던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참고 문헌 1) 김우현(2020. 12. 3. 작성) 국내 연구팀, 17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판별하는 진단기술 확보,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2057>  
(접속일: 2021. 9. 13.)

2) KIRD(2021. 8. 24. 작성) [人 Sight] 국가수리과학(연) 손우식  
감염병연구팀장, KIRD, 접속<https://blog.naver.com/keydream/222482501927>  
(접속일: 2021. 9. 13.)

3)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2021. 9. 10. 작성) 연령군, 백신, 변이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국가수리과학연구소, [https://www.nims.re.kr/research/post/covid19\\_2/34393](https://www.nims.re.kr/research/post/covid19_2/34393) (접속일: 2021. 9. 13.)

| 내용주   | 각주   | 참고문헌  |
|---|--|---|
| 김우현(2020)<br>(김우현, 2020)  | 김우현(2020. 12. 3. 작성) 국내 연구팀, 17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판별하는 진단기술 확보, 동아사이언스 또는 김우현(2020)   | 김우현(2020. 12. 3. 작성) 국내 연구팀, 17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판별하는 진단기술 확보, 동아사이언스, <a href="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2057">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2057</a> (접속일: 2021. 9. 13.)  |
| KIRD(2021)<br>(KIRD, 2021)  | KIRD(2021. 8. 24. 작성) [人 Sight] 국가수리과학(연) 손우식 감염병연구팀장, KIRD 또는 KIRD(2021)  | KIRD(2021. 8. 24. 작성) [人 Sight] 국가수리과학(연) 손우식 감염병연구팀장, KIRD, 접속 <a href="https://blog.naver.com/keyrdream/222482501927">https://blog.naver.com/keyrdream/222482501927</a> (접속일: 2021. 9. 13.)   |
|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 교수 연구팀 (2021)<br>(코로나19 수리모델링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TF, 2021) |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2021. 9. 10. 작성)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또는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2021) |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2021. 9. 10. 작성) 연령군, 백신, 변이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국가수리과학연구소, <a href="https://www.nims.re.kr/research/post/covid19_2/34393">https://www.nims.re.kr/research/post/covid19_2/34393</a> (접속일: 2021. 9. 13.) |

## 4.3. 데이터 및 기타 자료

“

정부 발간 통계자료의 활용

”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국가통계지표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사이트인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가상으로 구성된 글임.
- 표 1은 통계자료의 출처를 표기할 때 URL만 표기하여 인용표기 부적정 사례로 제시된 부분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경우, 발행기관, DB의 명칭, DB 작성일(갱신일), DB 발행처, DB 접속일, URL 등을 함께 기입함. URL 단독으로만 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표 2는 표 하단에 온라인 DB에 대한 출처를 표기하였으나, 보다 바람직한 출처표기 방법이 있어서 제시된 사례임. 본 사례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로 출처를 표기하고 있지만, 실제 독자가 해당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DB를 검색하는 경우, 「지역별고용조사」는 KOSIS(<https://kosis.kr/index/index.do>)뿐만 아니라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도 확인됨.
- 동일한 명칭의 통계자료 DB일지라도 해당 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따라 제공되는 DB의 시간적 범위 등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활용한 사이트의 명칭을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적절한 인용 예시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9년 현재 46%로 지난 8년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1년 44%(550만 가구)에서 2019년도 46%(556만 가구)로 다소 증가하였다(표1). 본 조사에서 맞벌이 가구의 정의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이다. 유자녀 기준(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으로 보면, 6세 이하가 44.6%, 7~12세 가구가 54.8%, 13~17세 가구가 59.5%로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표1〉 지난 10년간 맞벌이 가구 비율의 변화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맞벌이 가구수 | 5,241 | 5,201 | 5,175 | 5,331 | 5,358 | 5,545 | 5,456 | 5,675 | 5,662 |
| 전체 비율*  | 44.6  | 44.0  | 43.3  | 44.2  | 44.1  | 45.5  | 44.6  | 46.3  | 46.0  |
| 15~29세  | 39.0  | 40.3  | 37.7  | 37.8  | 36.8  | 38.6  | 36.8  | 38.6  | 40.1  |
| 30~39세  | 41.4  | 41.7  | 41.5  | 42.6  | 43.5  | 45.7  | 47.3  | 49.9  | 50.2  |
| 40~49세  | 52.5  | 52.1  | 50.6  | 51.7  | 51.2  | 52.7  | 52.1  | 54.2  | 54.2  |
| 50~64세  | 47.5  | 46.9  | 46.5  | 47.8  | 48.2  | 49.8  | 48.7  | 50.5  | 50.1  |
| 65세 이상  | 26.9  | 25.2  | 26.2  | 26.4  | 25.4  | 25.9  | 24.1  | 25.4  | 25.5  |

\*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출처: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표2〉 유배우 및 맞벌이 가구와 자녀 연령과의 관계

| 구분            | 2015      |           |      | 2016      |           |      | 2017      |           |      | 2018      |           |      | 2019      |           |      |
|---------------|-----------|-----------|------|-----------|-----------|------|-----------|-----------|------|-----------|-----------|------|-----------|-----------|------|
|               | 유배우<br>가구 | 맞벌이<br>가구 | 비율   | 유배우<br>가구 | 맞벌이<br>가구 | 비율   | 유배우<br>가구 | 맞벌이<br>가구 | 비율   | 유배우<br>가구 | 맞벌이<br>가구 | 비율   | 유배우<br>가구 | 맞벌이<br>가구 | 비율   |
| 전체<br>(0~17세) | 4,761     | 2,246     | 47.2 | 4,665     | 2,258     | 48.4 | 4,537     | 2,207     | 48.6 | 4,407     | 2,248     | 51   | 4,366     | 2,246     | 514  |
| 6세 이하         | 2,134     | 813       | 38.1 | 2,090     | 827       | 39.6 | 2,062     | 857       | 41.6 | 1,994     | 882       | 44.2 | 1,932     | 861       | 44.6 |
| 7~12세         | 1,330     | 684       | 51.5 | 1,308     | 690       | 52.7 | 1,285     | 659       | 51.3 | 1,318     | 715       | 54.2 | 1,381     | 758       | 54.8 |
| 13~17세        | 1,297     | 748       | 57.7 | 1,267     | 741       | 58.5 | 1,190     | 691       | 58.1 | 1,095     | 652       | 59.6 | 1,054     | 627       | 59.5 |

출처: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9년 현재 46%로 지난 8년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1년 44%(550만 가구)에서 2019년도 46%(556만 가구)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1〉. 본 조사에서 맞벌이 가구의 정의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이다. 유자녀 기준(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으로 보면, 6세 이하가 44.6%, 7~12세 가구가 54.8%, 13~17세 가구가 59.5%로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표1〉 지난 10년간 맞벌이 가구 비율의 변화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맞벌이 가구수 | 5,241 | 5,201 | 5,175 | 5,331 | 5,358 | 5,545 | 5,456 | 5,675 | 5,662 |
| 전체 비율*  | 44.6  | 44.0  | 43.3  | 44.2  | 44.1  | 45.5  | 44.6  | 46.3  | 46.0  |
| 15~29세  | 39.0  | 40.3  | 37.7  | 37.8  | 36.8  | 38.6  | 36.8  | 38.6  | 40.1  |
| 30~39세  | 41.4  | 41.7  | 41.5  | 42.6  | 43.5  | 45.7  | 47.3  | 49.9  | 50.2  |
| 40~49세  | 52.5  | 52.1  | 50.6  | 51.7  | 51.2  | 52.7  | 52.1  | 54.2  | 54.2  |
| 50~64세  | 47.5  | 46.9  | 46.5  | 47.8  | 48.2  | 49.8  | 48.7  | 50.5  | 50.1  |
| 65세 이상  | 26.9  | 25.2  | 26.2  | 26.4  | 25.4  | 25.9  | 24.1  | 25.4  | 25.5  |

\*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출처: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1~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표2〉 유배우 및 맞벌이 가구와 자녀 연령과의 관계

| 구분            | 2015      |           |      | 2016      |           |      | 2017      |           |      | 2018      |           |      | 2019      |           |      |
|---------------|-----------|-----------|------|-----------|-----------|------|-----------|-----------|------|-----------|-----------|------|-----------|-----------|------|
|               | 유배우<br>가구 | 맞벌이<br>가구 | 비율   | 유배우<br>가구 | 맞벌이<br>가구 | 비율   | 유배우<br>가구 | 맞벌이<br>가구 | 비율   | 유배우<br>가구 | 맞벌이<br>가구 | 비율   | 유배우<br>가구 | 맞벌이<br>가구 | 비율   |
| 전체<br>(0~17세) | 4,761     | 2,246     | 47.2 | 4,665     | 2,258     | 48.4 | 4,537     | 2,207     | 48.6 | 4,407     | 2,248     | 51   | 4,366     | 2,246     | 514  |
| 6세 이하         | 2,134     | 813       | 38.1 | 2,090     | 827       | 39.6 | 2,062     | 857       | 41.6 | 1,994     | 882       | 44.2 | 1,932     | 861       | 44.6 |
| 7~12세         | 1,330     | 684       | 51.5 | 1,308     | 690       | 52.7 | 1,285     | 659       | 51.3 | 1,318     | 715       | 54.2 | 1,381     | 758       | 54.8 |
| 13~17세        | 1,297     | 748       | 57.7 | 1,267     | 741       | 58.5 | 1,190     | 691       | 58.1 | 1,095     | 652       | 59.6 | 1,054     | 627       | 59.5 |

출처: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참고 문헌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1~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 내용주                      | 각주   | 참고문헌  |
|--------------------------|--|---|
| 통계청(2020)<br>(통계청, 2020) | 통계청(2020. 12. 13.)<br>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br>2011~2019,<br>통계청(2020)           |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br>「지역별고용조사」 2011~2019, e-나라지표,<br><a href="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https://www.index.go.kr/potal/main/<br/>EachDtlPageDetail.do?idx_cd=3037</a><br>(접속일: 2021. 12. 12.)    |
| 통계청(2020)<br>(통계청, 2020) | 통계청(2020. 12. 13.)<br>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br>2015~2019, 통계청<br>또는<br>통계청(2020) |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br>「지역별고용조사」 2015~2019,<br>e-나라지표,<br><a href="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https://www.index.go.kr/potal/main/<br/>EachDtlPageDetail.do?idx_cd=3037</a><br>(접속일: 2021. 12. 12.) |



## OECD AI 자료의 활용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OECD.AI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OECD.AI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임.
- 첫 번째 문단은 OECD.AI 관련 정보를 KISTEP(2020)의 자료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ISTEP(2020)의 인용표기를 누락한 사례임. OECD.AI 설명 내용을 KISTEP(2020)에서 사용한 표현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함.
- 나머지 내용은 OECD.AI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보고서의 일부로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였지만, 그림 하단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부적정 인용 사례로 제시됨. 타인이 작성한 글이나 그림을 활용하는 경우,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표와 그림이 재인용되는 경우 원출처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표/그림 하단에 출처표기는 반드시 해야 하며, 본문의 내용이 표/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본문에서는 출처 표기를 생략해도 됨.
- 온라인에서 분석 또는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사이트명, 인용된 자료, 시각화 제공자명, 구현된 날짜, URL 등의 정보를 표기하는 것이 좋음. 본 보고서에서는 MAG(Microsoft Academic Graph) 데이터(그림1~2)와 LinkedIn 데이터(그림3~그림5)가 사용되었으며 OECD 협력업체인 JSI에서 시각화한 것을 표시함.
-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주요 기구 및 국가에서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분석 및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이트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자료를 취득하고 시각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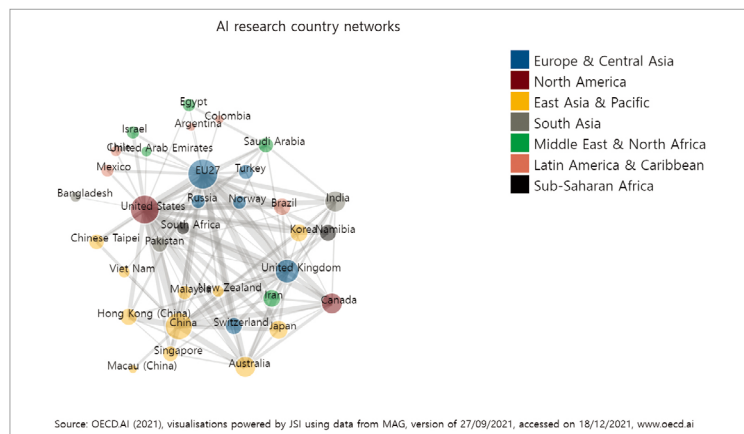
| 사이트명                          | URL   | 기능  |
|-------------------------------|---|---|
| 지오빅데이터<br>오픈 플랫폼              | <a href="https://data.kigam.re.kr/">https://data.kigam.re.kr/</a>     | 디지털 연구데이터 무료 제공, 지질주제도 통합서비스 제공,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Dataon) 연계, 데이터 기반의 협력 연구 생태계 구축 등 |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 <a href="https://dataon.kisti.re.kr/">https://dataon.kisti.re.kr/</a>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유 및 관리하고, 검색, 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br>데이터 정보시스템       | <a href="http://nrdata.re.kr">http://nrdata.re.kr</a>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및 유관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
| OECD AI Policy<br>Observatory | <a href="http://oedc.ai">http://oedc.ai</a>                           | OECD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 등  |

## 부적절한 인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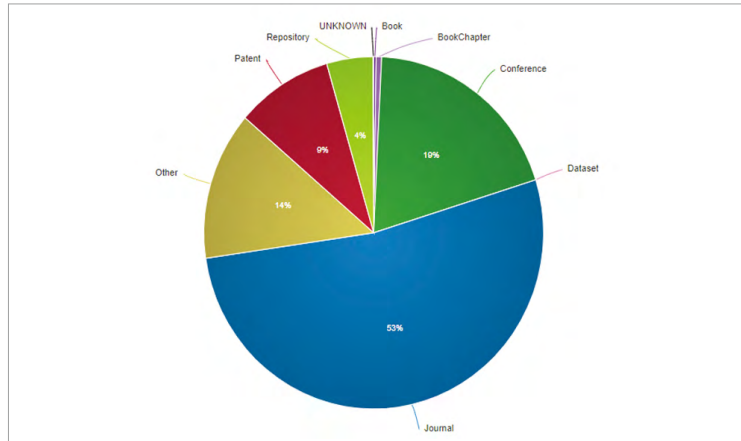
「OECD AI Policy Observatory」는 OECD가 구축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관련 세계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AI 정책 및 정책 추진 현황, 관련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AI 연구의 국가 협력 네트워크를 살펴보기 위해 OECD.AI.(2021)의 자료를 활용하였다(그림1). <그림1>의 동그라미는 1980년 이후 양국 공동으로 출판한 출판물의 누적 수를 의미한다(OECD.AI., 2021). AI 연구 국가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미국, EU27, 영국 중심으로 국가 간 AI 관련 협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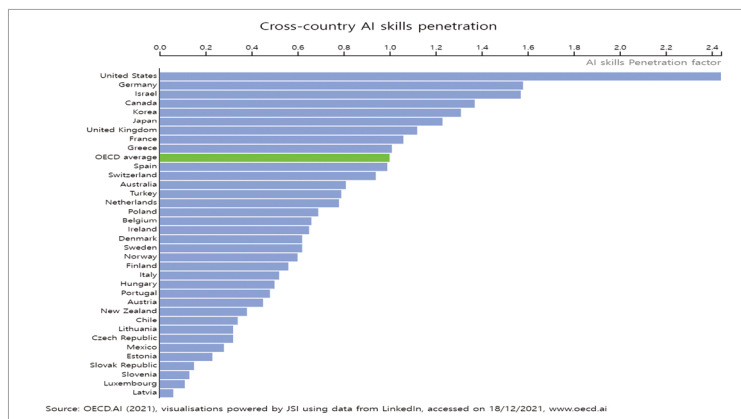
<그림1> AI 연구의 국가 간 네트워크

AI 연구 출판물은 53% 이상이 학술 논문으로 구성되며, 컨퍼런스, 특허, 책의 일부분(북 챕터) 등으로 이루어진다(OECD.AI., 2021)〈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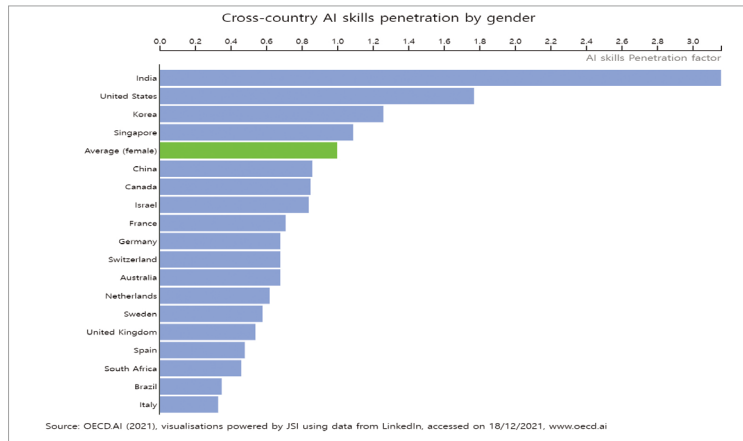
〈그림2〉 AI 연구 발행물의 구성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AI 스킬 보유 국가 순위에서 5위로 나타났다(OECD.AI., 2021). 2015년부터 2020년 평균 LinkedIn 회원 10만 명 이상인 국가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AI 스킬 보유(skill penetration) 현황은 1위가 미국, 2위가 독일, 3위가 이스라엘, 4위가 캐나다, 5위가 한국, 6위가 일본, 7위가 영국 순으로 기록 되었다. 35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는 9개로 나타났다(OECD.AI., 2021)〈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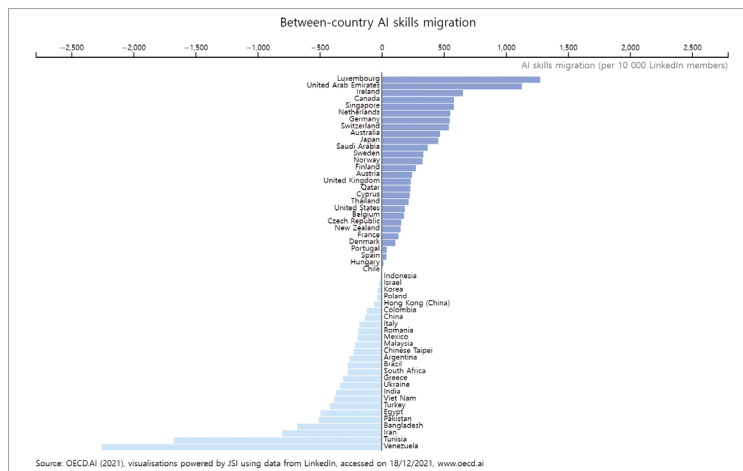
〈그림3〉 국가별 AI 기술 보유 현황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 AI 기술보유 역량은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3위로 나타난다<그림4>.



<그림4> 국가별 여성인력의 AI 기술 보유 현황

국가 간 AI 기술보유 인력의 유입유출현황을 보면,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호주, 일본 순으로 순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네수엘라, 튀니지, 이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그리스, 대한민국, 그리스 순으로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AI., 2021)<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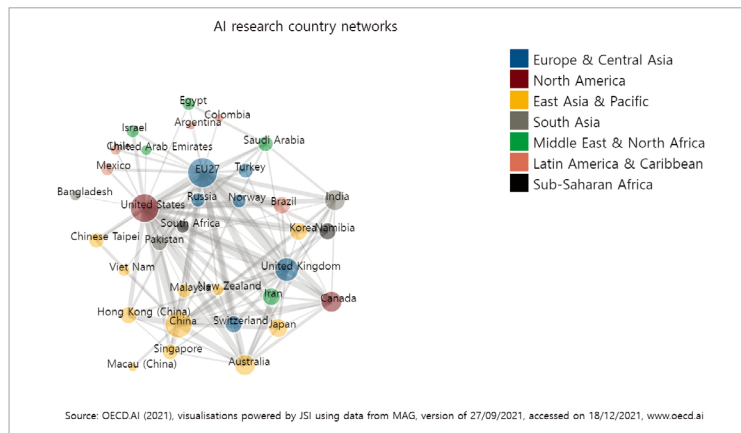
<그림 5> 국가 간 AI 기술 보유 인력의 이동현황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OECD AI Policy Observatory」은 OECD가 구축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관련 세계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AI 정책 및 정책 추진 현황, 관련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KISTEP,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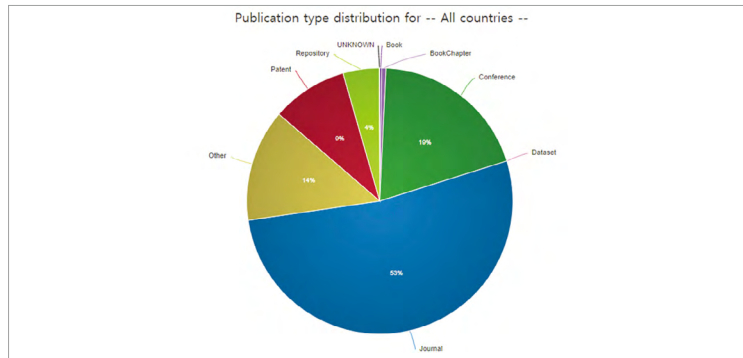
AI 연구의 국가 협력 네트워크를 살펴보기 위해 OECD.AI.(2021)의 자료를 활용하였다(그림1). <그림1>의 동그라미는 1980년 이후 양국 공동으로 출판한 출판물의 누적 수를 의미한다(OECD.AI., 2021). AI 연구 국가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미국, EU27, 영국 중심으로 국가 간 AI 관련 협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AI 연구의 국가 간 네트워크

출처: OECD.AI(2021), MAG(Microsoft Academic Graph)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2021. 9. 27.버전,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research&selectedVisualization=ai-research-country-networks>  
 (접속일: 2021. 11. 15.)

AI 연구 출판물은 53%이상이 학술논문으로 구성되며, 컨퍼런스, 특허, 책의 일부분(북 챕터) 등으로 이루어진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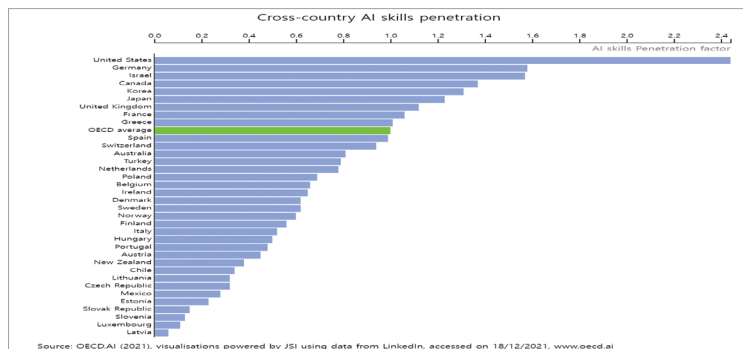
〈그림2〉 AI 연구 발행물의 구성

출처: OECD.AI(2021), MAG(Microsoft Academic Graph)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2021. 9. 27.버전,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research&selectedVisualization=ai-research-publication-type-distribution-by-country>

(접속일: 2021. 11. 15.)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AI 스킬 보유 국가 순위에서 5위로 나타났다(OECD.AI., 2021). 2015년부터 2020년 평균 LinkedIn 회원 10만 명 이상인 국가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AI 스킬 보유(skill penetration) 현황은 1위가 미국, 2위가 독일, 3위가 이스라엘, 4위가 캐나다, 5위가 한국, 6위가 일본, 7위가 영국 순으로 기록 되었다. 35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는 9개로 나타났다(OECD.AI., 2021)〈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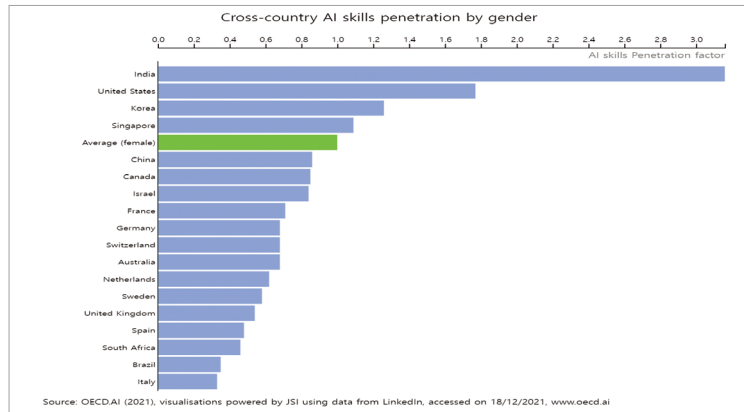
〈그림3〉 국가별 AI 기술 보유 현황

출처: OECD.AI(2021), LinkedIn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jobs-and-skills&selectedVisualization=cross-country-ai-skills-penetration>

(접속일: 2021. 1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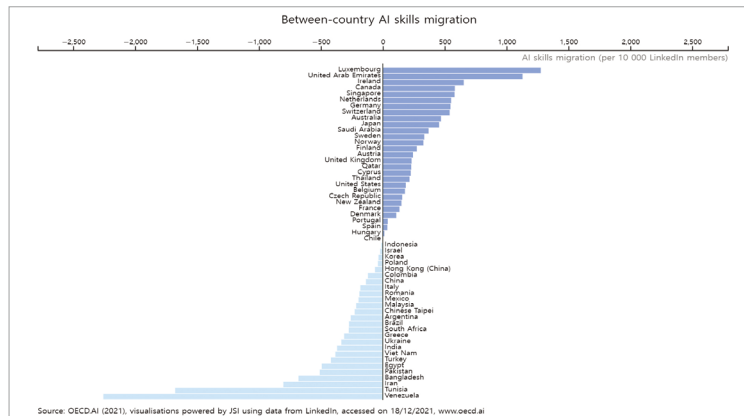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 AI 기술보유 역량은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나타난다<그림4>.



<그림4> 국가별 여성인력의 AI 기술 보유 현황

출처: OECD.AI(2021), LinkedIn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jobs-and-skills&selectedVisualization=cross-country-ai-skills-penetration-by-gender-2>  
 (접속일: 2021. 12. 18.)

국가 간 AI 기술보유 인력의 유입유출 현황을 보면,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호주, 일본순으로 순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네수엘라, 튀니지, 이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그리스, 대한민국 순으로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5>.



<그림 5> 국가 간 AI 기술 보유 인력의 이동현황

출처: OECD.AI(2021), LinkedIn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jobs-and-skills&selectedVisualization=between-country-ai-skills-migration>  
 (접속일: 2021. 12. 18.)

■ **참고 문헌** KISTEP(2020.2) [과학기술인재정책 동향브리프] OECD 국가별 AI 스킬 보유 및 AI 인력 유출입 현황

[https://hrstpolicy.re.kr/kistep/kr/board/BoardDetail.html?lastIndex=30&board\\_seq=40996&rootId=2006000&board\\_class=BOARD04&menuId=2006102&pageIndex=3&searchType=subject&pageIndex=1](https://hrstpolicy.re.kr/kistep/kr/board/BoardDetail.html?lastIndex=30&board_seq=40996&rootId=2006000&board_class=BOARD04&menuId=2006102&pageIndex=3&searchType=subject&pageIndex=1)  
 (접속일: 2021. 12. 18.)

OECD.AI(2021a), MAG(Microsoft Academic Graph)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2021. 9. 27. 버전,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research&selectedVisualization=ai-research-publication-type-distribution-by-country>  
 (접속일: 2021. 11. 15.)

OECD.AI(2021), LinkedIn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jobs-and-skills&selectedVisualization=between-country-ai-skills-migration>  
 (접속일: 2021. 12. 18.)





## OECD 인벤토리 자료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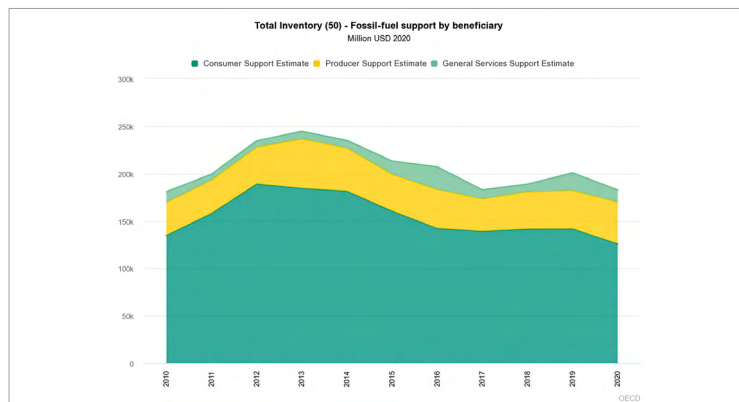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OECD 인벤토리에서 제공하는 그림과 글을 활용하였고, 표 하단에 출처를 표기하였지만, 본문에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제시된 사례임. 본문의 내용은 출처를 표기하고 있는 그림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한 본문에 대한 출처표기가 필요함.

## 부적절한 인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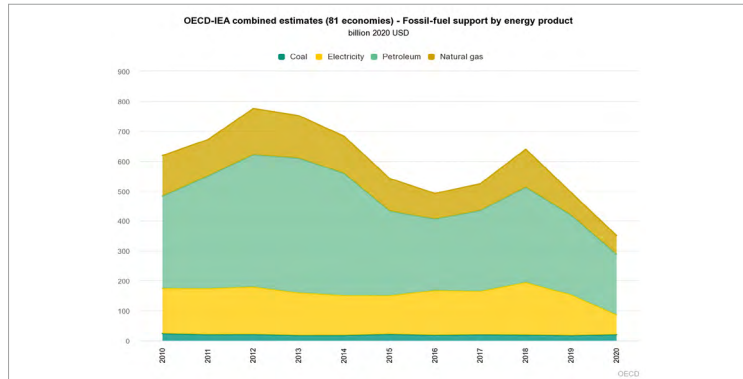


전 세계에서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각 국가 지원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 전 세계 화석연료 소비 보조금 규모 추정에 따르면, 2020년 화석연료 소비지원금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주요 국가의 화석 연료 생산 및 소비에 대한 2020년의 정부 지원금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침체와 사상 최저수준의 유가가 원인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1〉 Total inventory - Fossil-fuel support by beneficiary

출처: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https://www.oecd.org/fossil-fu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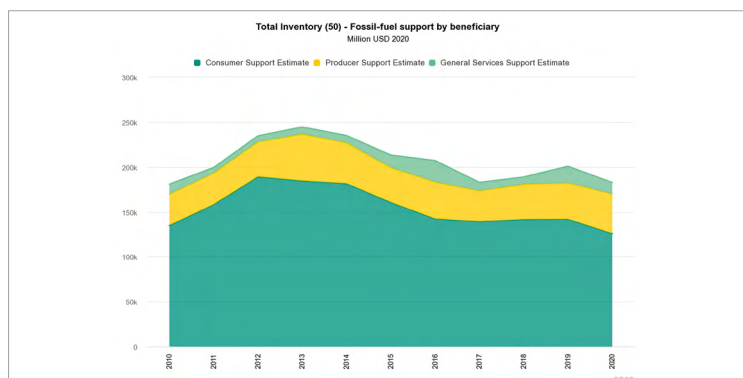
〈그림 2〉 OECD-IEA combined estimates - Fossil-fuel support by energy product

출처: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https://www.oecd.org/fossil-fuels/>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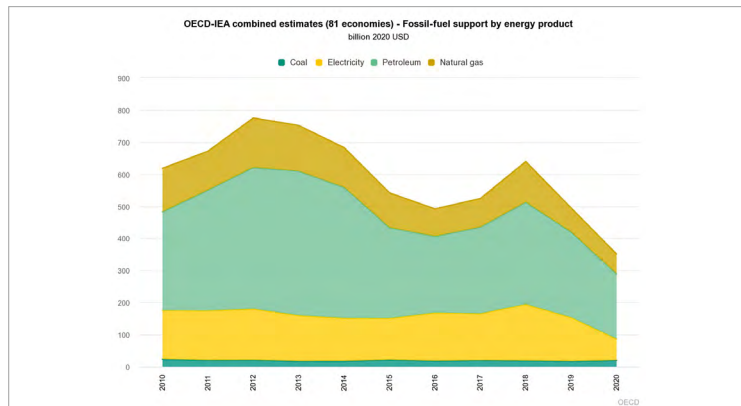


전 세계에서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각 국가 지원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OECD·IEA, 2021). 화석연료 소비지원금의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점차 줄어들고 있다(그림1).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저탄소 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다. OECD·IEA(2021)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경제국의 화석 연료 생산 및 소비에 대한 2020년의 정부 지원금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침체와 사상 최저수준의 유가가 원인이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 보조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림 1〉 Total inventory - Fossil-fuel support by benefici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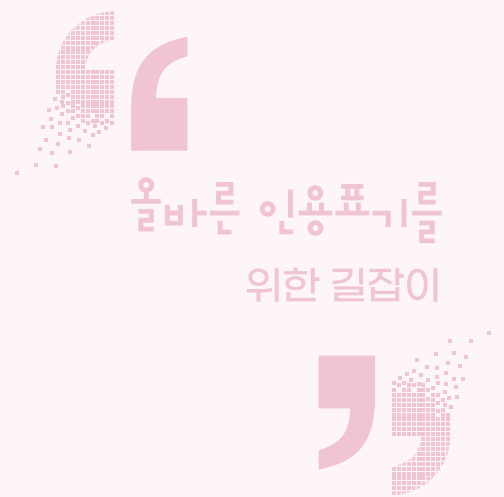
출처: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2. 18.)



〈그림 2〉 OECD-IEA combined estimates - Fossil-fuel support by energy product

출처: OECD (2021),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database).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1. 15.)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OECD 홈페이지,  
 2021. 12. 18. 접속, [https://www.oecd.org/fossil-fuels/OECD \(2021\),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database\).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1. 15.\)](https://www.oecd.org/fossil-fuels/OECD%20(2021),%20Inventory%20of%20Support%20Measures%20for%20Fossil%20Fuels%20(database).%20OECD%20홈페이지,%20https://www.oecd.org/fossil-fuels/)

| 내용주                        | 각주  | 참고문헌  |
|----------------------------|---|---|
| OECD(2021)<br>(OECD, 2021) |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OECD 홈페이지,<br><a href="https://www.oecd.org/fossil-fuels/">https://www.oecd.org/fossil-fuels/</a><br>(접속일: 2021. 12. 18.)                       |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OECD 홈페이지,<br><a href="https://www.oecd.org/fossil-fuels/">https://www.oecd.org/fossil-fuels/</a><br>(접속일: 2021. 12. 18.)                       |
| OECD(2021)<br>(OECD, 2021) | OECD (2021),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database). OECD 홈페이지,<br><a href="https://www.oecd.org/fossil-fuels/">https://www.oecd.org/fossil-fuels/</a><br>(접속일: 2021. 11. 15.) | OECD (2021),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database). OECD 홈페이지,<br><a href="https://www.oecd.org/fossil-fuels/">https://www.oecd.org/fossil-fuels/</a><br>(접속일: 2021. 11. 15.) |



올바른  
인용표기  
위한 길잡이

# 부록

## 인용표기 관련 질의응답 사례 참고문헌